

2016년 11월 21일,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, 문경미 조사.
양익근(여, 1930년생, 제주시 해안동)

[제보자]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났서. 이정승 삼정승 똥이 잇인 거라이. 이정승 삼정승 똥이 세 개. 어떤 남자 이쁜 남저가 그 집에 장개들젠 허난. 똥집에 장개들젠 허난. 아무라도 하날 차지해야 하지. 세 각시가 다 이쁜 거라이. 이쁜 거난 이걸 어떻게민 좋고 행 부모신디 오란

“정승 똥이 세 성지가 이신디 걸 하나만 허기도 난허고. 걸 어떻게 허민 좋암직 허파?”

부모신디 경 허난. 그럼 좋은 의견 내영 세 성제신디

“그냥 장개들라.”

“어떻 세 성지신디 장개듭니까.”

건디 이정승 허민 그자 그 집에 장개 들 수가 엇수다. 경 해도 드름심청행 한번 가 보랜. 가 보난 첫 번은 대답을 허고 말고 어떻게 행 새서방 하나에 딸 세 성제를 줄 수가 있어. 줄 수가 엇이니까 이젠. 어떻게 허민 좋고 허당. 시험을 쳐가 나니 합격이 됩가지고. 아들 하나가 며느리 셋을 헛다 허여. 그 남자가 원체 좋아난 모양이라. 얼굴이영. 미남으로 싯고. 똥도 이쁘난 경 허연. 일정승, 이정승, 삼정승. 그렇게 부재로 잘 살앗단 허여. 그런 말은 들어났어.

[조사자] 그건 어느 지경의 얘긴고예?

[제보자] 어느 지경인진 난 잘 몰라.

- 핵심어 : 일정승, 이정승, 삼정승, 각시, 정승, 장개